스위스 박물관에 찾아온 봄.

예술과 자연이 빚어내는 완벽한 하모니

팅겔리처럼 장난스럽게 물장난하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음악제도 즐기고
황제처럼 걸어보고
원예 정원에서 영감 얻고
피크닉 즐길 수 있는 스위스의 박물관 정원

스위스는 박물관을 지루한 곳으로 놔두지 않는다. 예술은 대중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 대중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려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눈으로만 봐야 하는 작품" 대신 "직접 만지며 체험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상호작용과 체험 위주의 전시를 기획한다. 그런 박물관이 더 매력적으로 대중에게 손짓하는 계절이 있다. 바로, 봄이다.

스위스의 여러 박물관은 탁월한 아트 컬렉션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도 세심히 가꾼다. 봄이 되면 스위스 가족들과 커플들은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려 박물관을 찾는다. 박물관 관람도 하고, 박물관 야외 카페에 앉아 봄날의 따스한 정취를 온전히 즐긴다. 스위스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정원이 있는 박물관을 소개한다.

1. 공원이 정겨운 리트베르크(Rietberg) 박물관, 취리히(Zurich)
리터 파크(Rieter Park)에서의 피크닉이 즐거운 곳
취리히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조경 정원으로, 70,000m2 나 되는 면적을 자랑하는 리터파크는 취리히 호수에서 가까운 엥에(Enge) 지구에 있다. 리트베르크 박물관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전통과 문화, 현대 아트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를 한다. 현지인들이 피크닉을 즐기러 찾는 공원이다.

2. 팅겔리(Tinguely) 박물관의 비치, 바젤(Basel)
만일 팅겔리의 기계가 수영을 할 수 있다면
진정한 레어템이다. 팅겔리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은 그 일정의 마지막에 꼭 젖고야 만다. 라인강과 접해있는 까닭에 날이 더워지면 수영 명소가 되는 곳이다. 바젤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강줄기를 여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요"의 비치가 박물관 바로 밖에 있다. 발을 적시고 싶지 않다면, 박물관 앞에 있는 장 팅겔리(Jean Tinguely)의 '수영장의 플라스틱'이란 뜻의 작품, "슈빔바서플라스틱(Schwimmwasserplastik)"에서 흩뿌려지는 물방울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볼 수 있다.

3. 첸트룸 파울 클레(Zentrum Paul Klee)의 프룻란트(FRUCHTLAND), 베른(Bern)
수확의 기쁨이 있는 박물관 공원
첸트룸 파울 클레를 찾은 이들이 주변으로 잘 단장된 잔디밭이나 우아하게 가지치기 한 나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호기심 있는 이들이라면 물결 모양의 건물 뒤를 엿볼 테고, 그렇다면 짙푸른 농장과 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숍이나 레스토랑에서 로컬 농가 "프룻란트" 제품으로 건강식을 내어놓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유다.

4.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 박물관 공원, 리헨/바젤(Riehen/Basel)
품격 있으나 생기 발랄한 공원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바이엘러 재단의 공원이 작품으로 단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찾아볼 이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박물관 공원은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줄곧 이용된다. 행사 때마다 무척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이엘러 재단에서 매년 열리는 여름 파티 및 패밀리 데이에서는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과 게임, 음식을 선보인다. “선.셋(sun.set)” 여름 이벤트 시리즈에서는 공원을 노천 일렉트로 뮤직 공간으로 변신시켜 아트와 뮤직을 한자리에 모은다.

5. 나폴레옹 박물관, 아레넨베르크(Arenenberg) 성
황제처럼 걸어볼 수 있는 곳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가 보덴제(Bodensee) 호수 언덕 위에 살았다. 취향껏 단장된 고성에는 커다란 공원이 자리해 있다. 지금은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성으로,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공원은 최근에 새롭게 단장되었다. 아레넨베르크 성은 나폴레옹 1 세의 처제이자 수양딸인 오르탕스 드 보아르네(Hortense de Beauharnais)가 성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귀족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다. 프랑스 황제 스타일을 잘 살려 성을 복원 시켰고, 1817 년부터 여기에서 그녀의 아들 루이 나폴레옹(Louis Napolen)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 아들이 바로 나폴레옹 3 세 황제가 된다. 인테리어와 가구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성의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그녀가 프랑스 정원 조경사들에게 디자인을 맡긴 약 4 만 평의 공원이 무척 아름답다.

6. 오스카 라인하트(Oskar Reinhart) 컬렉션 “암 뢰머홀츠(Am Römerholz)”, 빈터투어(Winterthur)
외딴 원예 가든을 거닐 수 있는 곳

스위스 박물관 중에서도 보석 같은 곳으로 꼽히는 곳으로, 빈터투어 언덕에 있다. 탁월한 20 세기 프라이빗 컬렉션 중 하나로 꼽히는 걸작들이 어여쁜 정원 고목 뒤로 숨겨진 빌라에서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빈터투어 출신 아트 컬렉터인 오스카 라인하트가 이 “암 뢰머홀츠” 주택을 박물관으로 변신 시켰다. 거기에 웅장한 갤러리도 더했다. 1965 년 그의 사망 이후 스위스 연방이 컬렉션을 기증받게 되었는데, 그의 유지를 따라 라인하트의 보물을 공개하게 되었다. 빌라와 조각이 있는 공원은 작지만 인상적인 아트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